

우리의 現實과 大學의 使命



亞洲大 總長 羅 雄 培

I

7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先進產業社會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온 國民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 각국의 선망과 주목의 대상이 될 만큼 괄목할 만한 經濟發展의 성과를 이룩하여 왔다. 이 시기에 우리는 石油波動을 비롯한 對內外的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꾸준한 成長을 거듭해 온 것이다.

經濟面뿐 아니라 教育, 社會, 文化 등 모든 분야에서 國力の 伸張은 눈부신 바가 있었으며, 5大洋 6大洲로 우리의 활동무대를 넓혀 가면서 한국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새롭게 확인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韓國의 地位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國威는 날로 伸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의 底力은 教育에서 그 源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國民의 뜨거운 교육열과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이를 흡수·수용하여 교육의 機會擴大에 진력해 온 교육계의 공로를 무엇보다도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에 의한 高級人力의 양성공급이 오늘의 국가발전을 있게 한 原動力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高等教育人口의 급격한 양적 팽창이 질적 향

상을 어렵게 하고, 人力需給의 불균형으로 고등失業者가 量産되며, 과중한 教育費負擔으로 教育亡國論까지 운위되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大學教育이 그동안 국가발전에 크게 寄與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유보할 정도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 國民이 해방 이후 모든 고통을 이겨 가면서도 教育에만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길러낸 人力이 70년대 이후 각 분야에서 그 能力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이만한 國力伸張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國內外 현실을 直視해 볼 때 先進產業社會로 발돋움하려는 念願이 얼마나 實現하기 어려운 일이며 克服해야 될 난관이 얼마나 험준한 것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 없다.

平和와 共同繁榮을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과 달리 모든 나라들은 自國의 利益을 앞세우고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政治的, 軍事的, 經濟的 갈등과 분쟁을 일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무역장비와 군비경쟁은 우리에게 큰 負擔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環境 속에서 분단된 祖國의 統一이라는 민족의 宿願을 안은 채 국가와 민족의 生存과 번영을 성취해야 하는 우리 世代의 책임은 참으로 무겁다 할 것이다.

國內的으로도 價値觀의 混沌과 倫理意識의 박

약,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國民의 期待感 上昇에서 오는 不滿 등 難題가 한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國內外的 挑戰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韓國이 世界에 雄飛하려면 무엇보다도 教育의 革新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教育의 量的 擴大로 後進國 隊列에서의 脫出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겠으나 남보다 더 많은 難題를 안고 高度産業社會로 進入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제 그리고 모든 國民이 굳은 意志로 心機一轉하여 새롭게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 國家發展에 기여한 教育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 앞으로 전개될 國內外 環境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大學教育의 使命과 役割을 재평가하고 改革의 方向을 모색하여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II

國內外 環境의 變化를 豫見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날로 加速되어 가는 科學技術의 高度化이다. 先進産業社會에 기필코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願은 고도화되어 가는 科學技術의 習得·開發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大學은 高級技術人力의 양성을 통하여 이 時代的 使命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國際水準의 學問的 優越性을 달성하기 위한 教育수준의 向上이 우리 나라 大學에 주어진 至上課題라고 할 것이다.

교육수준의 向上을 위하여 70년대 중반부터의 實驗大學 운영, 최근의 大學改革事業추진, 그 밖의 教育施設의 확충 보완, 教授의 海外派遣, 學術振興政策 등 일련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大學들이 호응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惰性和 대학재정의 貧弱, 급격한 규모팽창에 따르지 못하는 教授要員의 확보 미흡의 要因으로 大學教育의 質이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現實이다.

教育水準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여건하에서나마 타성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幽狀을 개선해 보려는 意志가 대학경영자나 教授들에게 있어야 하며 學生들과 社會의 올바른 인식 또한 필요하다.

치밀한 教授要目的 作成과 이에 따른 충실한 수업진행, 教科內容의 부단한 刷新, 授業方法의 다양화와 개선, 필수 교육연구시설의 구비, 行事나 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휴강 및 결강에 따른 授業缺損 방지 등은 大學當局과 교수들의 성의와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며, 대학의 浪漫이니 浩然之氣니 하며 學業을 경시하고 철저한 學事進行이나 出缺統制를 高等學校 教育의 연장이라는 등 혹평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식부족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言論을 비롯한 社會의 이해와 호응 또한 教育의 質向上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教育, 그 중에서도 大學教育의 가장 큰 병폐가 學歷과 學力의 不一致라고 한탄하거나 大學이 社會로부터 信賴를 받고 大學에서 부여하는 資格과 學位가 그대로 社會에서 通用되려면 大學도 高度의 品質管理로 質이 保證된 高級人力을 社會에 輩出하는 데 全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高度産業社會는 例外 없이 道德的 健全性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선진 사회건설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아니 튼튼한 道德의 基盤 없이는 經濟發展 그 自體가 先進水準 이전에 벽에 부딪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社會發展을 선도하는 大學의 機能은 知識과 技術의 開發傳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높은 倫理意識을 갖춘 專門人力을 社會에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倫理性이 결여된 高級知識이나 技術은 오히려 社會發展에 有害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윤리의식과 道德性의 함양은 大學만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家庭教育에서부터 初中等教育을 거치면서 體質化되도록 訓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大學은 大學으로서의 次元과 水準에서 道德性을 강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道德性은 지식의 문제라기보다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正規教育에서 뿐 아니라 大學의 經營에서부터 學生指導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실천을 통해서 강조되고 體得되어야 한다.

道德性은 균형잡힌 人性에서부터 우리나라

고 볼 때 人性開發을 위해서는 道具科目으로서의 敎養敎育이 아닌, 情緒의 醇化와 폭넓은 人格形成을 위한 敎養敎育이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學問의 추세속에서 人間性的의 회복이 점점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 높은 道德性和 균형잡힌 全人的 人格을 갖춘 人材를 사회에 배출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우리 大學人이 모두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先進産業社會로의 跳躍은 또한 국제사회의 一員으로서의 能動的 參與를 의미한다. 오늘날 世界各國의 번영을 위한 相互協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國際的 交流의 폭과 필요성도 더욱 增大되어 갈 것은 명백하다.

國民總生産의 80%가 貿易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 나라는 大學敎育을 통하여 國際社會에서 協力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國際人으로서의 視野와 能力을 갖춘 人材를 양성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韓國人으로서의 矜持와 主體性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우리 文化를 옹기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 外國語와 外國文化를 흡수·소화하는 敎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 우리 것을 찾자는 의욕이 大學街에 지나치리 만큼 팽배하고 있는 느낌이 있으나 이를 올바르게 유도함으로써 理解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의 계승 창달로 昇華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차 세계를 활동의 무대로 삼아 나가려면 外國語의 구사능력이 필수적이지 아닐 수 없으니, 效率的인 외국어敎育을 통한 世界人으로서의 韓國人을 길러내는 것이 또한 우리 大學의 責務가 아닐 수 없다.

III

未來社會는 점점 복잡하고 多元化되어 나갈 것이다. 더구나 民主社會는 多樣性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文化의 꽃이 피는 것을 理想으로 하는 사회이다. 敎育에 있어서도 未來社會의 變化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先進諸國의 多元的인 敎育制度를 연구 분석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

쳐 우리 社會에 맞는 制度를 開發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未來뿐만 아니라 現時點에서도 우리는 專門大學의 문제, 卒業定員制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放送通信大學, 開放大學 등의 설치도 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거니와 그 밖에도 예컨대 中等敎育의 中間段階에서 진학할 수 있는 3년제 또는 5년제의 전문대학, 전공특성에 따른 5년제 또는 6년제 대학 등도 생각될 수 있다. 1년마다 수료증을 주고 학생의 편의에 따라 일정 연한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대학, 季節學期 또는 夜間修學으로 일정한 學點을 취득하면 졸업시키는 제도 등도 예로 들 수 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의 너무 劃一的인 單線型學制를 複線型學制로 점차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문제, 전공과 지역의 特性에 따른 다양한 이수방법과 이수연한 平生敎育을 위한 制度開發 등 敎育制度의 多元化와 開放體制가 長期的 眼目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學問과 藝術은 어느 분야보다도 自由가 보장되어야 발전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制度的 개념이 大學의 自律 또는 自治라 할 것이다. 大學의 創造的 機能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大學의 自律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이 이제까지 정부의 諸般 規制를 많이 받아 온 것이 사실이고 이는 어떻게 보면 大學들이 自招한 結果라 할 것이다. 일부 不實하고 無節制한 大學運營이 사회의 지탄을 받아 온 것이 현실일진대, 大學의 自律은 大學 스스로가 品位를 높이고 社會의 師表가 되는 운영을 할 때, 그 幅이 넓혀질 것이다. 大學 스스로 權威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文化創造와 育英의 터전이 될 때 眞正한 大學自治는 실현될 것이다.

우리 나라 大學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完全 脫皮하지 못한 否定的인 面을 識者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無計劃性, 質的 不充實性, 理念不在性, 劃一性 등이며 국민들의 의식면에서나 財政面에서나 어려운 與件이 한두 가지가 아니나, 이를 克服하여 世界속의 大學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大學人의 使命이라 할 것이다. *